

■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광주시

## 일자리 만들고 문화콘텐츠 개발

# 시민감동정책 펼쳐라

민선 지방자치의 유아기(1·2기)와 청소년기(3·4기)를 거쳐 제 5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성년기를 맞이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성숙한 정책 제시와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광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나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역할과 의무의 고장인 광주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은 과연 그 만큼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을까? 광주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꽃피고, 예술과 문화가 시민의 삶 속에 녹아 있으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는가?

민선 5기를 맞는 광주는 지금 과연 광주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광주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민이 광주에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시민감동정책'의 발굴이 시급하다. 민선 5기는 시민 모두가 상대방의 반대나 지적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렴함으로써 더 큰 하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광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게 하라=삼성전자·기아자동차 광

주공장의 매출은 광주 경제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그만큼 광주에 의존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광주의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대기업 본사나 연구소가 아닌 공장이 지역 경제의 중추를 차지하면서 지역인재는 그에 맞는 대우를 바라며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또 사회의 동력이 돼야 할 청년층 실업률은 9%대를 기록할 정도로, 광주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도 적다.

◇세계가 광주의 문화를 이마기 하라=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은 광주를 세계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문화수도로서 세계에 내놓을 수 없는 문화콘텐츠를 창조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계시키며, 그 분야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한 데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광주의 문화를 융합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자랑할 수 있는 공간과 자연을 느끼도록 하라=고층아파트로 둘러싸인 정체성 없는 도시공간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무등산과 광주천에서 동네 뒷산과 개울까지 살피 개발하고, 이를 광주 도심과 연계하는 대표적인 공간을 조성해 세계 속에서도 돋보이는 광주의 대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을 섬기는 행정 실천하라=최근 남구청 6급 직원이 1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경찰에 구속되는 등 민선자치시대 비리는 번번이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권한이 집중된 공무원이 제멋대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각종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구성했으며, 막무가내식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권한을 시민에게 분배하고, 시민의 의중을 감안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공무원이 대우받을 때 비로소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시정이 가능할 것이다.

/윤현성기자 chadol@kwangju.co.kr

## 돔구장 백지화... 무등축구장에 새 야구장

### 강운태 시장 당선자·송광운 북구청장 합의

현 무등경기장 축구장에 개방형 야구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최근 광주 무등경기장을 방문해 기아타이거즈 관계자와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발전실행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현 무등경기장 축구장에 야구장을 신축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은 7일 기

간담회를 열어 "광주의 새 야구장은 현 무등경기장에 개방형으로 짓게 될 것"이라며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와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당선자는 지난달 27일 무등경기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장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12년까지 새 야구장을 신축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리에는 김재균 국회의원과

송 청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송 청장도 강 당선자의 뜻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청장은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기아타이거즈 2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축구장을 허물어 돔구장이 아닌 개방형 야구장을 짓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새 야구장 지하에는 주차장과 수영장 등이 있는 복합 체육문화 시설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00억~700억의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절반씩 총당하고 KIA 구단에도 일부 출연을 요청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안에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당선자는 선거 전 "무등경기장 축구장을 인천 문학경기장 수준의 개방형 야구장으로 만드는 문제를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두 당선자가 추진하는 방안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구장 신축문제는 돔과 개방형 등 건립방식, 장소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워야 하는데...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가 2차발사 이틀 앞두고 7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케이블장치의 전기적 신호에 대한 이상신호로 인해 기립이 지연되고있다. /연합뉴스

## 검찰, 전주인 서구청장 체포

### 승진 대가 수뢰 혐의

검찰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주인(62) 광주 서구청장을 인사비리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전 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른 비리 혐의로 체포되자 지역 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7일 구청의 승진인사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청장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청장은 지난 1월 11일 정기인사를 앞두고 5급 승진 대상자인 공무원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 청장이 지난해 인사 과정에서도

'뒷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고위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B씨로부터 "사무관 승진자에게 받은 3000만원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전 청장을 체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로호 발사 연기 가능성

### 발사대시스템 전기신호 이상...기립 지연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2차 발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나로호를 발사대에 세우는 작업 중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추후 일정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9일 발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8일 오전부터 최종 리허설을 6시간 이상 해야 하지만 발사대 기립이 늦어질 경우 리허설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비상대책회의를 진행 중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할 것인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8일 오전 회의를 거쳐 발사일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학교실업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를 더 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